해임취소 소송… 광주시는 임시이사 강행

〈경기도〉

나눔의집 법인 이사회 정상화 향방은?

경찰 수사 '혐의없음'에도
2월 1일 임시이사 파견해
해임명령 후속조치 일환

나눔의집 법인, 1월 20일
경기도 상대로 행정 소송
결과따른 변수·혼란우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경기도 광주시가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법인에 대한 임시이사 파견을 강행하면서, 추가적인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시이사 파견은 지난해 경기도가 나눔의집 법인 일부 이사들에 대한 해임을 명령한데 따른 후속조치이지만, 경찰이 해당 이사들의 해임사유인 후원금 횡령 의혹 등을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는 등 해임 명령의 타당성 여부에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나눔의집 측은 1월 20일 경기도를 상대로 이사 5명에 대한 해임명령 등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경기도 광주시는 2월 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쉼터 '나눔의집' 법인에 대해 임시이사 8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시이사는 강정숙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원, 박정화 삼육요약원장, 이찬진·김벼리·원성윤·김동현 변호사, 이총희 공인회계사, 박숙경 경희대 객원교수 등으로, 여성가족부(1명)와 보건복지부(1명), 경기도(6명)가 각각 추천했다.

광주시의 이번 임시이사 파견은 후원금 운용과 관련해 논란을 빚었던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한 명분이지만, 되레 정상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선임된 임시이사 8명은 지난해 광주시가 임명을 무효시킨 사외이사 3인과 경기도 해임명령 처분을 받은 이사 5인 등 8명에 대한 후속조치이지만, 이 중 이사 5인의 해임명령과 관련해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경기도는 이사 5명에 대해 후원금 운용 등 나눔의집을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 처분을 내렸지만, 정작 이를 수사한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도출하는 등 여러 변수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나눔의집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에서 이사들에 대한 해임명령 취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 이사들은 원직 복귀해야 할 것"이라며 "이 경우 경기도와 광주시의 임시이사 파견 문제가 또다른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 임시이사 파견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해임' 조항에 따른 것이다. 법령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임원 해임을 명령할 수 있는 요건은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됐을 때 △법인의 업무에 관해 시·도지사에 보고할 사항에 대해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했을 때 등이다.

시·도지사가 해당 법인에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해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혹은 시정을 요구해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눔의집 법인의 경우 이미 광주시·경기도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에 나섰고, 이사 5명에 대한 혐의점 역시 경찰수사에서 '혐의없음' 결론이 도출됐다는 점에서 "경기도의 해임명령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경기도 등이 이사 5명에 대한 해임을 강행함으로써, 이사진을 교체 및 선임해 나눔의집 운영 주도권을 박탈하려 했다는 의혹도 적지 않다.

이사 5인의 해임명령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형사소송 및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나눔의집이 더 큰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양태정 변호사는 "경기도 이사 해임명령에 이어 광주시가 임시이사를 파견한 상황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형사소송 및 해임명령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나눔의집 문제는 애초 이사들의 개인적인 횡령 등 심각한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이사 해임까지 할 사안은 아니었음에도, 이런 상황으로까지 이어진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사회복지계 관계자는 "나눔의집 문제는 이사진의 횡령이나 배임 문제라기보다 상당수가 운영 미숙으로 인한 것이었고 법인 차원에서 광주시와 경기도 감사 결과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진행됐다"며 "그럼에도 '내부제보 직원'과 시설운영진 간의 갈등이 추가적인 논란으로 이어지고 사회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이를 의식한 경기도의 후속조치가 또다른 논란을 야기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되레 정상화를 방해하는 요인이 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원융살림 자세로 교구화합 힘쓸 것"

10교구 은해사 주지 덕관 스님
원행스님, 2월 4일 임명장 수여



"원융살림의 전통을 잘 되새겨 어른 스님 잘 모시고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함께 아우르고 품어낼 수 있는 교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계종 10교구본사 은해사 주지 덕관 스님〈사진〉이 2월 4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받고 "교구복지와 대중화합을 중점 과제로 삼아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덕관 스님은 지난 2월 15일 은해사 산중총회에서 성담 스님과의 경선을 통해 주지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덕관 스님은 특히 교구 복지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스님은 "대중 스님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교구 승려복지 방향성을 정해나갈 예정"이라며 "종단 승려복지회와의 소통 및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인 복지가 가능하도록 교구 차원의 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어른 스님들을 잘 모시고 소외된 분들이 없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대중 스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 나갈 것"이라며 "교구의 진정한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원행 스님은 "어려운 시기 중책을 맡게 됐다"며 "원로의원 스님도 계신 교구인 만큼 어른 스님들을 잘 모시는 가운데 교구를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스님은 임명장 수여식 후 백만원력결집불사 기금으로 2000만원을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덕관 스님은 금정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청하 스님을 계사로 1992년 사미계, 1996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총무원 재무국장과 감사국장 등을 지냈으며 충주 미륵세계사 주지, 강화 보문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 제17대 중앙종회의원으로 불굴사 주지다. 송지희 기자



쉬페르 에디오피아 대사가 원행 스님을 예방했다. 이는 아프리카 국가 대사의 첫 종단예방이다.

"에디오피아 평화 위한 조언자돼 달라"

주한에디오피아 대사, 2월 3일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 예방서

쉬페르 시구테 월라샤 주한 에디오피아 대사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지혜로운 조언자가 돼달라"고 부탁했다. 또 탄자니아 농업기술학교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 진행되는 복지·지원 사업을 언급하며 형제의 나라인 에디오피아와의 인연도 강화되길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쉬페르 에데오피아 대사는 2월 3일 신년인사차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한국과 에디오피아 간 긴밀한 연대 확장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했다. 아프리카 국가의 주한대사가 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방한 것은 종단 역사상 처음이다.

원행 스님은 "한국전쟁 당시 에디오피아가 병력을 파견한 데 대해 기회를 빌어 감사를 드린다"며 "인연이 된다면 에디오피아 방문을 포함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스님은 "연등회가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만큼, 올해 연등회에 대사를 초청해 함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쉬페르 대사는 "한국전쟁 당시 황제의 호위대가 파견된 이후 국민들에게 한국은 형제의 나라다"며 "한국에 와서 불교를 접한 후 불교가 평화의 종교임을 알게 됐다. 85개 민족으로 구성된 에디오피아에 꼭 필요한 덕목이 평화와 화합인 만큼, 총무원장 스님께서 에디오피아를 위한 지혜로운 어른, 조언자가 되어 에디오피아를 위해 가르침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지희 기자

연등회보존위원회, 봉축행사 지원 공모

연등회보존위원회(위원장 원행)는 1월 29일 "불기2565(2021)년 부처님오신날 자비의손길·단체봉축행사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불교 문화예술단체, 사회봉사단체, 신행단체(서울지역 중심)이며,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누구나가 공감하는 행사 △동체대비의 정신을 실천하는 자비의 손길 행사 △전통 불교문화 발굴 및 재현 행사 △시민과 함께 하는 불교문화 예술행사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불교문화 예술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접수기간은 2월15일부터 19일까지이며 봉축행사 지원신청서(소정양식)와 관련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02)2011-1859

송지희 기자

'화합·통합' 강조…전통문화 계승 당부도

원행 스님, 정치인에 당부한 메시지는?

새해 보궐선거·신년 인사차
정치인 조계종 예방 잇따라

새해를 맞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가르침을 구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예정된만큼, 후보로 나선 이들을 중심으로 불심을 잡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불교지도자로서 원행 스님은 이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전했을까.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정치인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가르침은 화합과 상생, 국민 통합,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이다.

특히 화합과 상생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 심화된 국민 양극화와 이로 인한 분열, 사회적 갈등을 우려하는 메시지로, 모든 정치인 예방에서 공통적으로 당부하는 가르침이다.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에 대한 당부는 최근 연등회의 유네스코 세계인류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민족유산의 소중함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원행 스님은 2월 4일 나경원 의원 예방서도 "화합이 자비고 상생이 보살도"라며 화합과 상생의 실천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예방에서는 '중도를 통한 화합'을 강조했다. 스님은 1월 26일 안 대표에게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지도자로서 화합과 상생을 위한 큰 일을 해주길 바란다.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모든 국민들을 보듬어 안아 주는 정치를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1월 19일 예방한 김선동 서울시장 예비후보에게는 연등회 전승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1월 20일 예방한 이언주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에게는 부산 경남지역의 전통사찰 보존을 당부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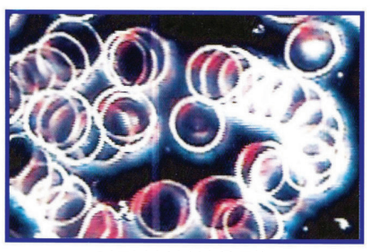
"국민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며 가르침을 구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각회 회원)에게는 "민주주의는 국민의 민도만큼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이 있다"며 "민심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맞는 대처 방안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송지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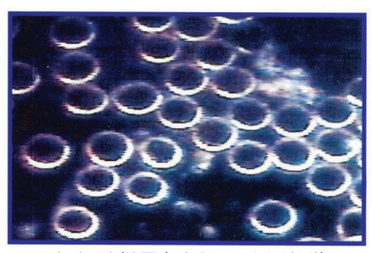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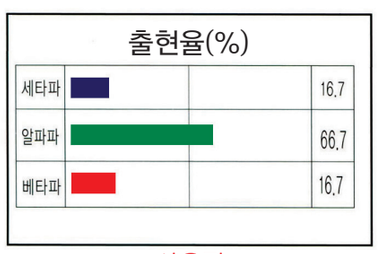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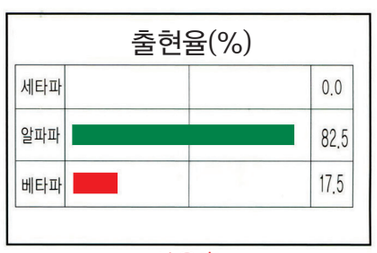


정상 적혈구(사용 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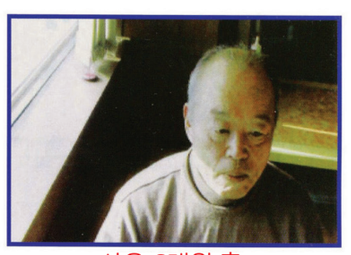
사용후

검버섯



사용전

제거 현상



사용 6개월 후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생기는 다리 쥐나는 것, 목, 어깨, 허리통증, 무릎관절 등은 피가 맑아져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자연치유되어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항균 폐렴균·대장균·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가 폐렴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균에 의한 모든 폐렴질환을 예방할 것이며 대장균 99.9% 정균감소는 식중독, 배탈, 설사를 예방하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아토피, 검버섯, 무좀, 비듬, 사타구니 가려움증, 발뒤꿈치 각질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윤이 나므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납니다.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신년감사 특별세일 1월 18일 ~ 2월 10일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강비누:120g 2개 100,000원
BLOOD MATE® 순비누:120g 4개 100,000원
ORAL MATE® 치 약:120g 3개 63,000원

26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 혈액건강 ◈
◈ 두뇌건강 ◈
◈ 세포건강 ◈

세상에 이런 세정제를 보셨습니까?

㈜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